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에… “골목상권 다 죽일라”

쿠팡 독주 막기 대형마트 족쇄 풀다지만 자영업계 변수
동네 시장·전통시장 타격 불 보듯… 벌써 “강경 대응 불사”
여전에서도 논란 확산… 당정청 “상생 대책 병행” 달래기 나서

당정청이 쿠팡 독주 문제를 위해 대형마트 새벽배송 규제 완화를 추진하면서 유통업계 구조 재편이 예고됐지만, 소상공인 반발로 제도화에 진통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8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 협의회를 열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

서 “온라인 비중 확대 등 유통 환경 급변에 따라 오프라인 중심으로 설계된 규제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온·오프라인 규제 불균형을 해소해 공정한 경쟁 환

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핵심은 대형마트의 ‘자정~오전 10시’ 영업시간 제한 규정이 새벽배송 운영을 사실상 봉쇄해 왔다는 점이다. 현행 유통법 상 영업 제한 시간에는 점포 내 상품 포장·반출 등도 영업행위로 간주돼 배송 준비가 집중되는 새벽 시간대 서비스를 운영하기 어려웠다.

반면 쿠팡 등 온라인 유통업체는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같은 장보기 시장에서 대형마트만 규제에 둑여 있다는 ‘역차별’ 논란이 지속됐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더불어민주당 정철영 대표 등 참석하에 열린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심으로 재편된 유통 생태계에서 공정 경쟁 여건을 만들겠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법 개정 방향으로는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규정의 적용 범위에서 ‘전자상거래를 위한 영업행위(포장·반출·배송 등)’를 예외로 두는 단서 조항 신설이 거론된다.

업계는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SSM) 점포가 전국적으로 분포해 있어, 대규모 추가 투자 없이도 새벽배송 커버리지를 빠르게 확장할 수 있다고 본다. 실제 점포 기반이 충족한 오프라인 사업자가 새벽배송에 합류하면 쿠팡·컬리 등으로 쏠린 수요 일부가 분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의 반발은 거세다.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등은 “쿠팡만 키우는 평계로 대형 유통의 족쇄를 풀어주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허용이 ‘플랫폼 독점 해소’로 포장됐지만, 결과적으로는 동네슈퍼·전통시장·골목상권을 대기업의 무한 경쟁으로 밀어 넣는다는 주장이다. 여전 내부에서도 이견이 나오며 논란은 확산되는 분위기다.

당정청은 규제 완화와 함께 상생 대책도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육성을 위한 보완책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하고, 새벽배송 확대에 따라 제기될 수 있는 배송 노동자의 건강권 문제도 별도 대책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허용 시기’와 ‘적용 범위’, 상생안의 실효성이 구체화되지 않으면 이해관계 충돌은 계속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유통법 개정이 단순 규제 완화에 그칠지, 산업 전반의 경쟁 질서를 재설계하는 계기가 될지는 세부 시행안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김나윤 기자 nykim@skyedaily.com

50대 그룹 사외이사 44% 임기 만료… 물갈이 예고

주요 기업 사외이사들의 의무 교체 기한이 다가오면서 이사회 구성에 큰 변동이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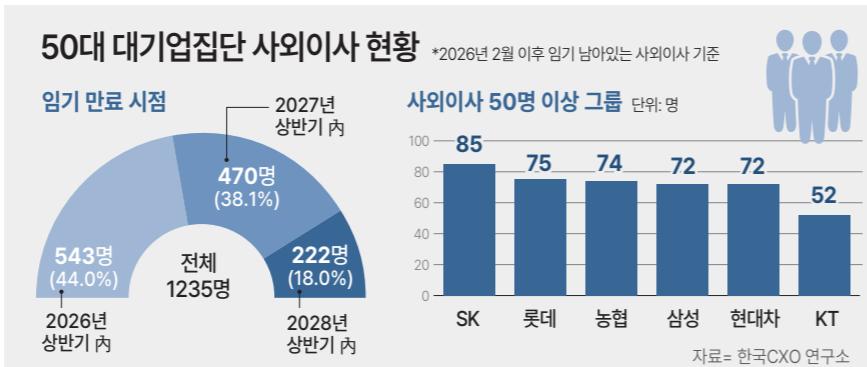
한국 CXO 연구소는 2025년 50대 그룹에서 활약하는 사외이사 및 2곳에서 활동하는 전문 사외이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 대상은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대기업 집단 중 공정 자산 기준 상위 50개 그룹이다. 각 그룹이 지난해 5월에 공시한 대기업 집단 현황의 사외이사 현황을 기준으로 했다.

올해 2월 기준 임기가 남은 사외이사는 1235명(중복 포함)이며 상반기 내 임기가 공식 만료되는 인원은 543명으로 전체의 44%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그룹별 사외이사 수를 보면 SK그룹이 85명으로 가장 많았고 롯데·농협이 각각 75명과 74명으로 뒤를 이었다. 삼성·현대차가 72명으로 공동 4위에 올랐다.

상반기 내 임기가 종료되는 543명 중 103명은 2020년 6월 이전부터 사외이사 임기가 시작됐다. 자본시장법 등에 따르면 자산 2조 원이 넘는 회사에서는 사외이사로 최대 6년까지만 재직 가능하기 때문에 3월



의무 교체 103명 중 40명, 10대社 소속

3월 주총 앞두고 재선임·교체 갈림길

주주총회에 맞춰 이사회에서 물러나야 한다. 의무 교체 대상 103명 중 40명 중 10대 그룹 소속으로 삼성과 SK가 각각 11명씩 이었다.

50대 그룹 계열사 중 두 개 회사 이사회에 참여하는 사외이사는 110명이었다.

대학총장·교수·연구원 등 학자 출신이 39.1%(4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위직을 역임한 행정직 관료 출신은 24.5%(27명)으로 집계됐다. 판·검사 및 변호사 등 법조계 출신과 기업체 임원 및 CEO 등 재계 출

신은 각각 18.2%(20명)이었다.

한국 CXO 연구소는 사외이사 임기가 대거 만료되고 새로운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독립성을 갖춘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일선 한국 CXO 연구소 소장은 “올해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는 사외이사 독립성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 주요 이슈로 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준규 기자 jgyang@skyedaily.com

HD현대重, 리야드 방산전 출격… 사우디 호위함 수주 총력

중동지역 최대 규모의 방산 전시회에 참석한 HD현대중공업은 사우디아라비아 차기 호위함 사업 수주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HD현대중공업은 8일부터 12일까지 사우디 리야드에서 개최되는 2026 국제방산전시회(WDS)에 참가한다고 8일 밝혔다. 전시회에서 HD현대중공업은 LIG넥스원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이오에스티(EOST)와 함께 연합 전시관을 구성해 첨단 함정 건조 기술과 해상 방위 역량을 종합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격년으로 열리는 WDS는 올해 76개국 770여 개의 방산 기업과 1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며 중동 및 글로벌 방산 시장의 주요 의사결정자들이 한자리에 모일 예정이다.

사우디 정부는 신형 호위함 등을 대규모로 도입하는 해군 현대화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다. HD현대중공업은 이번에 사우디 요구조건에 최적화한 6000톤급 수출형 호위함 HDF-6000을 비롯한 총 8종의 함정을 선보인다.

세계 최정상급 이지스함인 세종대왕급 구축함과 정조대왕급 구축함을 잇달아 건조한 HD현대중공업은 기술 역량과 노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서 열리는 ‘WDS 2026’의 HD현대중공업 부스 조감도.

HD현대중공업

하우를 바탕으로 HDF-6000 호위함을 규모를 키우고 탑재 장비 및 성능도 대폭 향상한 이지스함 호위함으로 개발했고 사우디 국방부 및 해군 주요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해군 현대화 사업에 대한 패키지 솔루션을 강조할 계획이다.

현지 생산 비율을 요구하는 사우디 정부의 정책에 발맞춰 HD현대중공업의 설계·건조·사업관리 역량과 평화 시마조선소의 성공적인 실적을 바탕으로 한 현지 건조 및 유자·보수·정비(MRO)까지 실적 기반의 풍부한 경험과 차별화된 전략을 소개한다.

사우디 현지 건조에 최적화된 단계적

현지화 방안에 제시한다. HD한국조선해양과 사우디 국영 기업 아랍코 등이 공동 투자해 설립한 사우디 IMI 조선소를 중심으로 HDF-6000에 대한 현지 건조 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번 WDS 기간 중 HD현대중공업은 사우디 투자부 및 LIG넥스원, STX엔진 등 국내 기업 12개사와 함께 사우디 현지 공급망 구축을 위한 공동 MOU를 체결한다. MOU 체결을 통해 사우디 산업 참여 프로그램에 대한 협력 방안을 수립하고 사우디 시장에 동반 진출하기로 했다.

이영훈 기자 yhlee@skyedaily.com

사람 중심 휴먼드레스 심성으로 만들어 갑니다

진심 담은 이야기로 마음을 브랜드하다

SkyDaily

변화의 본질을 담아, 내일의 브랜드 이끌다

심성브랜드연구소

